

### 미래 첨단산업은 대학이 만든다

#### 아침시평



허탁 전남대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교수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역사와 배경을 살펴볼 기 대에 가슴이 벅찼다. 작은 박물관에서 보여준 실리콘밸리의 역사는 경이로웠다. 애플을 필두 로 구글, 인텔, 휴렛팩커드, 제록스 등 세상을 움 직이는 IT기업이 모두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성 장하였다. 전 세계적인 기술혁신의 상징이 된 실리콘밸리의 역사는 놀랍게도 스탠퍼드대학에 서 시작하였다. 심지어 산호세의 사람들은 "스 탐퍼드대학 없는 실리콘밸리는 없다"고 까지 말 한다.

스탠퍼드대학의 설립은 철도사업으로 큰 돈 을 벌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상원의원을 지낸 릴런드 스탠퍼드가 설립하였다. 1884년 15세 아 들이 장티푸스로 사망하자 그의 부인에게, "캘 리포니아의 젊은이들을 모두 우리의 자녀로 삼 을시다" 라고 말하고 그가 소유한 팜로앨토의 말 목장에 학교를 지었다. 그래서 실제 공식적 인 이름은 죽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릴런드 스 탐퍼드 주니어 대학교'이다. 설립 후 릴런드 스탠퍼드의 죽음과 1906년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캠퍼스가 심하게 파괴되어 큰 위기를 겪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당시 학장이던 프레더릭 터먼이 스탠퍼드 부근 지역 산업 발전 을 위해 이끈 기업가정신 캠페인에 의해 실리콘 벨리의 기반을 만들었다. 실리콘의 시대에 이어 인터넷의 시대가 오면서 실리콘 벨리와 스탠퍼 드대학은 세계의 첨단 산업을 이끌었다.

스탠퍼드대학에서 시작된 실리콘 벨리의 성 공사에는 혁신적인 선구자와 인재 양성 그리고 전략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로 설명된다. 결국 실 리콘 벨리의 시작과 지금까지 이끌어 오는 그 동 력은 스탠퍼드대학이다.

광주시에 4차산업의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이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이 되었다. 실리콘 벨리와 스탠퍼드대학의 성공 사례처럼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한 시작은 이 지역 의 대학에 집중적인 투자와 전략적인 인재 양성에 있다. 광주에 AI기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대학원과 인공 지능 융합연구소 설립, 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 AI 알고리즘을 통합 제공하기 위한 개방형 인프라 운영이 절실하다. 결국 이런 인재양성은 이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인력과 재정지원을 분산시키지 말고 전 략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산· 학·연 연구협업체계의 구축을 돕는 인공지능지 원센터를 통하여 지역 전략사업인 자동차, 에너 지, 헬스케어 등과 연계한 기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이제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사업'은 광주시로 제한할 수 없는 우리나라 의 미래이며 일본과 미국을 넘어서는 첨단산업 이 되어야 한다.

일본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적 반하장의 경제보복 조치로 우리나라 첨단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첨단산업의 토 대가 되는 과학기술 발전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 다. 다행히도 광주시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4 천61억 원을 투입해 첨단3지구에 AI기술을 접 목해 시장성이 높은 에너지, 자동차, 헬스케어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를 조성하며 이어 2027 년까지 총 사업비 1조원을 인제 육성, 창업 지원, 연구개발 등에 쓸 계획이다. 바야흐로 광주 의 낙후된 지역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미래 성장동력 산업 거점으로 개편하는 그 시작 을 보여 10년전 기억이 떠오른다 아이폰의 대대적인 성공으로 전세계적인 스 마트폰 열풍이 몰아치던 2009년 캘리포니아 산 호세의 실리콘벨리 역사박물관을 찾았다. 내심

### 블루 이코노미를 아십니까?

#### 기고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스티프 등을 통해 생태계의 순환을 도울 것이다. '블루 이코노미'는 2010년 벨기에 환경운동가 군터 파울리가 처음 주장했다. 적색경제와 녹색경제를 낚는 탄소제로 청색경제로 가지는 거였다. 커피 한잔의 찌꺼기(10g)를 모아서 버섯을 재배하여 사료로 활용하고, 비타민과 설탕 의 원자재인 옥수수나 사탕수수 잔재도 오염원 이 없게 재활용하는 거다. 또한 흰개미의 집 은 '30C 온도와 61% 습도로 항상 유지된다.' 에서 에너지 프리 주택을 생각하고, 나미비아 나이브사막 풍뎡이가 안개에서 물을 흡수하는 기술과 얼룩말이 줄무늬를 통해 피부 온도를 낮 추며 생존하는 지혜를 인간의 생활에 활용하자 했다.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는 장래 블루오션을 담았다. 세상에 없던 일거리를 만들 것이다. 우 리는 1999년 5월 합평의 그 많던 사람과 차량들 을 기억한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나비의 꿈을 관광축제로 만든 것이다. '나비는 어디에서 나 와요?' 질문에 '합평이요.'를 답하게 했다. 어린 이들은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는 푸른 언덕에...' 동요를 부르며 '나비=합평=친환경=희망'임을 알게 됐고, 오늘날 큰 고객으로 성장 하고 있다. 하늘과 강물도 더 파랗고 푸르러졌 다. 이렇게 '블루'는 자연을 대표하는 색으로, 어린 시절 도화지의 바탕색이기도 했다. 이제 두 바다를 공유한 전남의 색이 되었다. 태초 이래 자연은 규칙에 따라 움직이며 변화

를 선택했고, 인간은 취하고 돌려주기를 반복하 며 의식주를 해결했다.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 갔다. 오늘날은 어떤가? 석유의 부산물인 플라 스틱이 일상을 지배하며, 각 고분자간 결합을 통해 신소재를 계속 생성해내고 있다. 그 끝은 알 수 없지만 명백한 사실은 그들 잔재가 썩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쯤이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눈은 현실이 쫓기에만 바쁘 다. 그래서 전남이 나섰다. 우선은 농어촌과 해 안에 산재한 폐비닐과 스티로폼을 수거하여 생 명의 땅을 키우고, 그 처리는 '블루바이오'가 되 게 할 것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며 천지창조와 빅뱅의 산물이라 했다. 발명과 창조 또한 없으며 단지 발견일 뿐, 누구든 먼저 선점하여 그 가치 를 재창출하면 된다. 그래서 내 것, 내 분야만이 최고일 수는 없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는 스티브 잡스와 같이 다른 생각과 사물을 항상 융합 할 줄 알아야 한다. 파울리는 '어들에게 우리 가 알고 있는 것만 가르친다면 결코 우리보다 잘 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남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AI(인공지능), 5G(5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기술과 자연모사 기술을 블루 이코노미와 연결해 나갈 준비가 되었다. 그 실 현을 위해 전문위원회와 관련조직 구성 등 행정 지원도 다하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의 반석이 되게 할 것이다. 파란 하늘, 풍성한 추석이 기대되는 오늘이다.

#### 발언대

### 국민의 안전 위협하는 112 허위신고

요즘은 예전과 달리 112신고 방법이 다양해져 전화와 휴대폰 문자,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112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신고의 취지에서 벗어난 허위신고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고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범죄 등 각종 치안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112 신고 대응역량 강화지침을 마련하여 관할지역을 분문하고 범죄 신고 최민첩 순찰차가 우선 출동하는 지령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기능을 분문하고 형사, 교

통순찰차 등 가능 가능한 모든 경력을 포함하는 112신고 총력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1분 1초라도 빠른 강력범죄 초기대응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12허위신고 유형을 보면 "강도를 당했다, 폭탄을 설치했다, 납치되었다, 사람을 죽였다" 등 다양하다. 실제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순찰차를 타고 가기위해 강도를 당해 택시비까지 탈려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거나 혼자 남겨져 다쳤음에도 지나 가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고 뺑소니 신고를 한다. 이러한 유형의 허위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타 업무에 우

선하여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다 보면 경찰 인력 낭비는 물론 쓸데없는 출동으로 예산 낭비까지 불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대 발생한 긴급한 범죄에 대처하지 못하는 점에서 단순한 허위신고가 경찰출동을 지연 시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범죄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경찰은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하여 허위신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때문이 아니라 "112허위신고"가 만연되면 정말 필요할 때 경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 그 피해는 바로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허/평 (당양경찰서 중앙파출소장)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1988년 10월10일 창간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지) 회장 조덕선 사장 발행·편집인 장인균 주필 김영태 편집국장 강동준 주소 (우) 61234 광주시 북구 제봉로 324(중흥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 대표전화 (062) 606-7700 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 구독신청 (062)606-7776 편집부 (062)606-7750 정치부 (062)606-7730 경제부 (062)606-7713 사회부 (062)606-7722 지역사회부 (062)606-7723 문화체육부 (062)606-7737 사진부 (062)606-7762 뉴미디어부 (062)606-7780 서울지사 (02)313-1681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가장 빠른 광주뉴스 사랑방 뉴스룸 무등일보·뉴스가 함께 만듭니다

### 사설

### 광주·전남 역대 최대로 내년 국비 예산 확보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확보한 내년도 현안사업과 관련한 국비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올해 확보했던 예산을 상회하는 규모로 지역발전전에 필요한 부문들이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의 내년 현안사업은 263건으로 2조 2천205억원(신규사업 78건 1천492억원·계속사업 185건 2조713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금년 예산(2조149억원)과 비교해 2천 56억원이 늘어났다. 광주의 미래먹거리 사업이라할 인공지능(AI)집적단지조성 사업(426억원)과 지난달 끝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레거시), 한국수영진흥센터건립 설계비(6억원) 예산 등이 눈에 띈다. 오는 5일 기공식이 예정된 광주도시설도 2호선 건설(610억원), 광주형일자리지원시설인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98억원), 친환경차부품클러스터 사업(379억원), 내년 40주년을 맞은 5·18 기념사업 예산(25억원) 등도 확보돼 이들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블루이코노미 등 미래 신성장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국비 6조7천억원을 확

보했다. 블루이코노미의 마중물이자 '전남형 일자리 모델'로 육성 예정인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59억원), 남해안 신성장을 위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와 연계된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비(7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먹거리 산업을 위한 소형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 및 실증(20억원),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 개발 실증기반 조성(19억원), 수송기용 마그네슘소재 실증기반 조성(20억원), 석유화학 부산물 저급연료 제사용 공정 기술개발(5억원), AI기반 수확용 스마트팜 로봇개발 및 실증(20억원),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영농실증 확산사업(16억원) 등의 예산도 마찬가지다. 광주·전남이 내년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않다. AI집적단지 조성 예산이 당초보다 1/3가량 줄어드는 등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 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시·도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는 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지역감정 자극하고 나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이 주관해 부산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그랬다. 명색이 새야당의 원내대표가 특정지역을 찾아 해묵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데 대해 개탄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열린 '문 정권 규탄 부산·울산·경남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차별하면서 더 힘들게 하는 정권을 부산, 울산, 경남지역 주민들이 뭉쳐서 반드시 심판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이 부울경 쪽에 인재를 등용하는가 봤더니, 간단한 통계만 봐도 서울 구정장 25명 중 24명이 민주당인데 그 중에서 20명이 광주, 전남, 전북이더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전형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에 다름없다. 그는 이에 앞서 대구에서 "기덕도 신공항을 부산으로 승인해 TK를 차별한 것이다"는 등 언급을 하기도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지

지층을 비하하면서 극우 인터넷인 일베상용어인 '달창'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비난이 일자 "그 뜻을 잘 모르고 사용했다"고 변명 한 바도 있다. 나 원내대표의 지역감정 조장발언에 네티즌들은 앞다투어 "구정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가", "한국당은 박정희의 유신독재. 전두환의 군사독재 씨앗들이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원조는 거기에서 시작됐다", "그 씨앗답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대구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부끄러운 퇴행"이라며 "제1야당 원내대표의 말이라고는 절제와 품격을 찾기 힘든 발언"이라고 밝혔다. 역대 정치인들이 정당한 주의·주장보다 시대착오적인 지역감정에 기대 정쟁을 일삼는 발언을 한 사례는 적지않았다. 특히 호남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무시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편취해왔다. 이로 인해 지역이 나뉘고 나라가 분열됐다. 김 의원의 언급처럼 '부끄러운 퇴행'을 일삼는 정치인의 행태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

### 그녀들의 이야기(Herstory)

일제강점기 그녀들이 겪었던 끔찍한 기억을 다른 영화는 여러 형태로 선을 보였다. 그 첫번째라 할 '귀향'은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작업 이후 완성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세간의 냉대가 그랬든 관계 당국이나 투자자들의 냉대 속에 제작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작 과정의 어려움과 달리 영화가 개봉된 이후 뜻밖의 관객이 몰렸다. 또 다른 관객동원에 성공한 '아이 캔 스피크'와 '눈길' 역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언으로부터 비롯됐다. 수많은 밤을 꼬박 새운 끝에 가족에게조차 감추고 살아야 했던 끔찍한 옛 기억을 털어놓고서야 사람들은 그 기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들은 끔찍한 사연의 피해자였으면서도 그 사연의 전말을 드러내지 못한 채 수십년의 세월을 가슴앓이 해오던 터였다. 자칫 그런 일을 당한 이들이라는 사회적 몰이해에서 기인한 손가락질과 모델같이 두려웠던 때문이다. 그들의 쓰라린 과거를 보듬어 안아주고 그와 같은 일을 자행한 가해자들을 세상에 알려 치죄해야 마땅했던 나라도 이를 외면했었으니 말해 무엇하랴.



#### 약수터

그녀들의 이야기, '허스토리(Herstory)'도 마찬가지다. 2018년 6월 개봉된 영화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직접 나서 당당하게 싸웠던 이야기를 그렸다. 그녀들은 부산에서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을 오가며 6년여 동안(1992-1998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청구한 재판을 벌였다. 이른바 '관부(關釜)재판'에는 10명의 원고단과 13명의 변호인이 관여해 23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다. 그녀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1924-1997)의 증

영화 허스토리가 스크린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오랜 여정 끝에 처음이자 유일하게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할머니들의 과거사였다. 영화속 재판장에서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털어놓은 그녀들의 옛 기억은 우리 모두가 진작에 마주하고 가슴으로 공감했어야 할 아픈 역사다. 과거사에 대해 참회나 사과없는 일제(日帝)의 후예들과 그들을 향한 '우리만의 총직환대변인'들이 부끄러운줄 모르고 활개를 치는 지금, 더욱 그렇다. 김영태주필 ytm0617@srb.co.kr